

# 국회 6일만에 정상화... 고용세습 국조 합의



민생 불모 '보이콧' 이제 그만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 여야 원내대표 6개항 합의... 예산소위 평화당 참여 유치원 3법·인사청문회 등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공전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21일 옛세 만에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모두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게 될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확정했다. 비교섭단체로는 민주평화당이 참여키로 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 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되,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정조사 개시 시점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여야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는 별개로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의 모든 채용비리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제한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비리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상선포의제'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윤창

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정 3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법안을 조속히 모두 모아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예뻐 말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유치원3법)을 포함해서 다른 당에서 제출한 법안들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유치원3법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여야 5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

겠다는 것이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국회 끝에 정기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이번 합의의 내용을 두고 각 당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도 기존 3가지 요구사항 중 2가지(대통령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를 포기하고 얻어낸 합의에서 당내에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받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예결특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 예산소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예산소위에는 민주당에서 조정식·서상석·박홍근·조용천·민홍철·박찬대·조승래, 한국당에서 안상수·이장우·송인석·장제원·권선동·함진규, 바른미래당에서 이혜훈·정운천, 민주평화당에서 정인희 의원이 각각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공립 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검토

### 당·정·청 실무협의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국공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늘리고 통학버스를 전면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당·정·청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대비 부모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육부는 통학이나 퇴원 시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국공립 유

치원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통학버스 전면운영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갔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4개 법률안의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당정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향후 위원회의 기본 방향과 기능 등을 설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의에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바른미래 지역위원장 28명 확정

바른미래당이 박주선·주승용·김동철·김관영·정운천·최도자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지역위원장 28명을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지역 대상자 28명을 최종 선정, 의결했다.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 18일 비경합지역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바 있다. 조강특위는 서류심사와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제7차 전체회의에서 ▲지역조직형 25명 ▲전문가인재형 2명 ▲청년형 1명 등 총 28명을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 대상으로 1차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위원장은 김성식·오신환·유승민·이학재·박주선(광주 동

남구울)·김동철(광주 광산갑)·신용현·유의동·정병국·김수민·정운천(전주중)·김관영(군산)·최도자(여수갑)·주승용(여수을)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14명과 김화진 전남체육회 자전거연맹 회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 등 원외지역위원장 14명이 포함됐다. 국회 일정에 참여하는 의원 26명 중에 현직 의원 12명은 자격미달, 신청서류 미제출 등의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인주 의원 등 일부 현직 의원은 책임당원 모집 등의 자격요건에서 자료를 미제출해 이번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희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감 일정 등에 따른 서류 미비로 1차 공모에 접수하지 못해 차기 공모에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여권, 노동계와 관계 고심

### 민노총 총파업 돌입... 홍영표 원내대표 "대화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민노총 등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21일 전국민노총조합 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화보다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작심비판했던 것과 비교할 때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대화해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는 모양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최고위원도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권 쟁취 투쟁

을 했지만, 대화를 통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많다"며 민노총이 총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최근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에 등을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면 민노총의 이탈이 심화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민노총의 강경 투쟁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다수 일반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성장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민노총이 거들어주는 건 커녕 오히려 정부를 투쟁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어찌됐던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서 노동계와의 꾸준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계가 이제는 경제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 노동단체도 엄연한 경제 주체의 입장에 섰다"며 "노동단체들이 눈 앞의 이익이나 명분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과제를 함께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선거연령 18세 하향·선거운동 자유 확대"

### 정계특위 공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마련한 정치제도 개혁 공청회에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지구당 부활,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공청회에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허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북돋고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박명호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 개편도 함께 가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004년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 금지된 바 있다.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